



## 한국의 파렛트시장 분석

물자의 흐름에 있어서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운송기기 수단은 파렛트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물류라는 통칭에서 파렛트는 작은 운송기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쓰임새와 역할은 물류의 기본 틀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파렛트 역사와 전반적 시장을 분석하여 본다.

- 편 집 실 -

### 우리나라의 파렛트 보급과정

물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품인 파렛트는 6.25 한국 전쟁 때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물류 작업 시 현장에서 하역작업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 되었다. 국내에서 수송용으로 파렛트가 활성화 된 시점은 1980년대로 음료나 맥주업계를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급초기단계에는 공장 구내 및 창고 등 주로 보관용으로 사용되던 파렛트는 점차 수송에 투입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과 생활수준의 향상,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졌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중간에 환적작업 없이 보관, 수송, 하역되어지는 일관 파렛트화가 물동량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95년 12월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을 제정하면서 국가 표준 파렛트로 T-11형(1100×1100mm)을 선정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어 2003년에는 '물류표준설비인증제'를 시행하게 되고 지난 2007년에는 '물류표준설비인증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 1회용 플라스틱 파렛트 성장률 눈에 띄어

국내 파렛트는 연간 1500만매에서 1700만매가 생산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시장이다. 지난 2005년 이전에는 매년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정체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파렛트 시장에 재질의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의 경우 목재가 전체의 70%정도 차지했다. 1회용 파렛트만 보면 90%정도로 거의 모든 파렛트가 목재로 제작 됐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60%선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목재 파렛트의 생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 한국 파렛트 컨테이너협회 박은규 부회장은 "미가공 목재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발동되면서 변하고 있다. 세계 식물보호협약기구(IPPC) ISPN No.15라는 규정에 의해 수입이나 수출되는 목재에 열처리나 방부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유는 각국의 병충해가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목재 파렛트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수명이 짧아 국내에서는 목재가 기를 펴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물의 파손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목재 파렛트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1회용 파렛트의 경우 목재, 철재, 합성재, 플라스틱이 섞여있지만 플라스틱의 성장률이 가장 눈에 띈다. 플라스틱의 경우 목재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사출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해당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대 플라스틱 사용국으로 재료도 거의 모든 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목재에 비해 구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철재를 이용한 파렛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양파렛트의 윤형민 부장은 "철재 파렛트가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철재 파렛트를 만드는 곳이 많이 있다. 파악된 자료보다는 시장이 크다. 보이지 않는 생산업체들이 많다. 자동차 부품 쪽은 거의 100%철재"라고 말했다.



## 목재, 철재, 플라스틱 모두 다 친환경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파렛트 업계에서는 현재 목재, 플라스틱, 철재 파렛트가 모두 친환경이라고 말한다.

목재는 재사용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재료 자체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친환경의 이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순수하게 이야기 하자면 나무만이 천연재료로 가장 환경 친화적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목재 파렛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목재에서 플라스틱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파렛트는 95% 이상이 목재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다. 영림 목재의 물류사업부 송진호 차장은 “해외의 경우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인 코스트코의 경우 목재 파렛트만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 중에는 목재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철재는 목재보다 강도가 좋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말한다. 동양파렛트의 윤형민 부장은 “목재, 철재, 플라스틱 모두 보는 방향에 따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철재는 재사용률이 가장 좋고 폐기 시에도 자원으로 남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의 경우는 현재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재활용)의 전단계인 자발적 협약 시스템을 실행 하고 있다. EPR은 플라스틱을 사용 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자발적 협약 시스템은 관련 단체와 환경부 장관이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에 대해 재활용을 하기 위한 협약으로 현재는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폐기물 부담금이 kg당 3원 80전 정도 했다. 하지만 폐기물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kg당 350원 정도 부과 되고 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박은규 상근 부회장은 “생산업체에서는 100배나 높은 부담금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EPR로 가기 전에 자발적 협약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해 폐기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이에 대한 원가가 상승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보통 EPR에 포함되는 것은 소모성 플라스틱 제품인데



파렛트는 물류기이다. 이는 소모성 플라스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상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는 그 중간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 아시아는 T-11형

### ▷ 국가별 파렛트 사용 규격 및 수출입비중

규격	주 사용국가
1200mm×1000mm (1219mm×1016mm)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홍콩, 남부아프리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1200mm×800mm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1100mm×1100mm	한국, 일본

자료 :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llet standards Operational and cost implications, 2002.3

중국이 지난해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표준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T-11형 파렛트를 국가 표준으로 선정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일관 수송용 평파렛트 풀시스템 구축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파렛트시장 분석(통계)

파렛트 생산비중 변화추이(단위 : %)

	1100×1100mm					1200×1000mm			
	철재	플라스틱	목재	전체		전체	목재	플라스틱	철재
1997									
2000									
2003									
2006									



▲ 파렛트 생산 실태 조사 결과의 규격별 / 재질별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규격 별로서 우리나라 일관수송용 표준 파렛트인 1100mm×1100mm 규격의 생산비중은 1997년 전체 파렛트 생산비중의 17.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37.1%의 생산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1100mm×1100mm 규격 파렛트를 원하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국내 파렛트 규격에 이슈가 되고 있는 1200mm×1000mm 규격 파렛트의 생산비중을 보면 1997년 전체 파렛트 생산비중의 11.1%에서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2006년 기준 1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철재 파렛트 전체 생산비중의 약 절반 정도는 1200mm×1000mm 규격으로 생산되고 있다.

▲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200mm×800mm 규격 파렛트의 생산 비중을 보면 1997년 전체 파렛트 생산비중의 1.4%를 타나내다 2006년 기준으로는 0.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비중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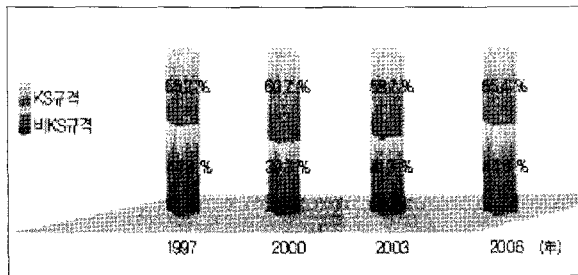
▲ 기타 KS 규격 파렛트의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나타낸 규격이 1300mm×1100mm 규격 파렛트의 생산비중이다. 1997년 전체 파렛트 생산 비중의 13.6%를 차지하여 1100mm×1100mm 규격 파렛트의 생산비중 다음으로 많은 생산비중을 차지했지만 2006년 급감하여 3.8%를 나타냈다. 또한 1100mm×1100mm 규격과 1200mm×1000mm 규격 파렛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KS 규격파렛트의 생산비중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KS규격 파렛트 생산비중 변화추이 (단위:%)

구분	연도	전체	목재	플라스틱	철재	합계
1100×800mm	97년	8.5	7.5	1.1	4.2	.
	00년	8.6	10.9	0.8	18.8	0.0
	03년	2.6	2.7	2.0	4.0	8.7
	06년	1.6	2.0	0.6	4.0	(목재여포함)
1300×1100mm	97년	13.6	11.0	15.6	42.3	.
	00년	11.4	11.6	11.0	12.1	.
	03년	11.1	12.3	7.8	8.2	0.0
	06년	3.8	1.8	8.0	0.0	(목재여포함)
1400×1100mm	97년	2.6	3.0	1.7	0.8	.
	00년	2.4	2.3	1.7	10.5	8.9
	03년	2.7	3.6	0.2	0.1	0.0
	06년	0.3	0.0	0.9	0.0	(목재여포함)
1500×1100mm	97년	0.7	0.2	2.3	0.1	.
	00년	0.4	0.2	0.0	8.3	0.0
	03년	1.1	0.3	3.9	0.3	0.0
	06년	0.4	0.6	0.0	0.0	(목재여포함)



▲ 내용을 종합해 규격별 파렛트 생산비중을 KS규격과 비KS 규격을 나누어 비교하면 1997년 1차 조사시 KS 규격의 생산비중은 55.2%로 비KS 규격과 큰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 후 2000년 2차 조사시 60.7%로 KS 규격의 생산이 많아지는 듯 했으나 2003년과 2006년에 소폭 하락하면서 1차 조사시와 비슷한 수준인 55.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파렛트를 1회용 수출용으로 주문을 요구함에 따라 비KS 규격 파렛트의 생산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재질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파렛트 생산재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에 쓰이는 재질은 목재로 나타났다. 목재 파렛트는 1997년 조사시부터 2006년 까지 출공 가장 많은 생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전체 재질별 생산비중의 70.2%를 차지 하던 것이 2003년까지는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2006년에는 60.5%를 나타내어 약 10%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플라스틱 파렛트가 목재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매당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분석됐다.